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윤명식
편집국장: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3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93년도 단기수련회 개최

오는 1월 13일과 14일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들 대상으로 실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
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훈
련원 주관으로 오는 1월 13일과
14일 저녁 6시 40분부터 93년도
단기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단기수련회는 교역자, 장

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찬양
대원, 교구일꾼, 전도회원, 직원
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1부로 영성훈련 순서를 가진 후,
2부로 첫날인 13일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로부터 “93년도 목회
방침과 전망”에 관한 말씀을 듣

고, 14일에는 직분별로 흠어져
각 직분에 맞는 주제로 특강을 받
는다.

모든 직분자들은 기도로 준비
하면서 이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
라고 있다.

성경통신강좌
교구별로 시상식

오늘(27일) 교구모임 시간에
성경통신강좌 시상식이 각 교구
별로 실시된다.

올 한 해 동안 주보에 게재된
성경통신강좌에 참여한 성도들
중 각 교구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
둔 남녀 1명씩을 선발하여 우수
상이, 또 2/3 이상을 제출한 성도
들에게는 일반상이 수여된다.

특별제직회 소집

특별제직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제직회원은 모두 참석하기 바란다.

- 일시: 12월 30일 수요일 2부 예배 후
- 장소: 본당
- 안건: 92년도 결산 보고 및 93년도 예산 승인

93년도 1월 1일에 신년예배
오전 5시에는 새벽예배도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 새벽과 오전에 특별 예
배 순서를 마련하였다.

1월 1일 새벽 5시에는 신년새
벽예배를 드리고 오전 9시와 11

시에는 신년예배를 드리는데, 새
벽예배시에는 김창인 원로목사가
설교를 하고 신년예배시에는 당
회장 신성종 목사가 설교한다.

공 동 의 회 소 집

93년도 제1차 공동의회를 아
래와같이 소집한다. 우리 교회 등
록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하기 바
란다.

• 일시: 93년 1월 3일 4부 예
배 후

• 장소: 본당
• 안건:
92년도 결산 보고 및 93년
도 예산 승인
93년도 안수집사 및 권사
선거

충현프리즘

◎...한 해가 저
물어 갑니다.
아름다운 결산 보
고서가 준비되었는지
요?

지난 한 해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못다한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로 용서
받고, 긍휼의 은총
을 입어 새롭게 봉사
하며 헌신하려는 자세
를 갖도록 우리 모두
가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죄와 허

물을 숨기실 때 용서
하지 않으십니다. 책
임을 다하지 못한 것
을 솔직하게 고백하
고, 자비로운 주님의
사랑을 기다려야 합니
다.

◎...우리 충현교
회는 시무장로서는
최초로 이 나라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탄
생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 장로는 “이 모
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하고 “그
동안 기도해주신 김창
인 원로목사, 당회장

신성종 목사, 그리고
충현의 모든 성도들에
게 특별히 감사드리
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기 5년을 마
칠 때까지 계속 기도
로 협력해줄 것을 것
을 부탁하고, 충현교
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에 다시 한번 감
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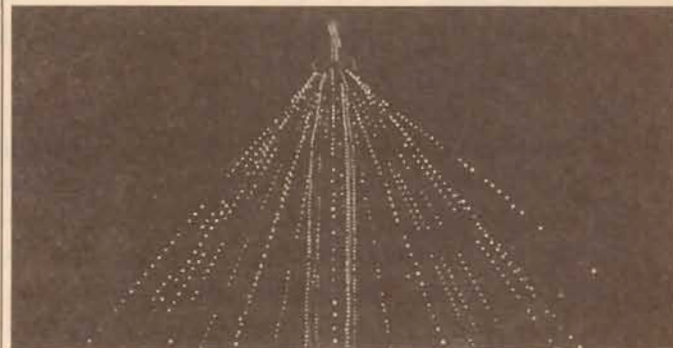
◎...성탄 축하
예배, 새벽예배, 축하
음악예배가 지난 주간
에 있었다.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축하하는 예

배들이 우리들을 기쁘
게 하였다.

지난 20일 주일 저
녁에는 호산나찬양대
의 “크리스마스 축제”
음악예배가 있었고 25
일 새벽예배는 오전 5
시에 본당에서 가졌으
며, 축하예배는 당일
오전 9시와 11시에 본
당에서 가졌다.

또한 이날 저녁에
는 교육위원회 주관으
로 초등1부~6부 어린
이들의 축하음악예배
가 은혜롭게 진행되었
다.

카메라 초점



▲ 지난 12월 17일 전방부대 가침봉에 십자탑을 세우고 점등식을 가졌다. 겨울 밤
하늘을 밝게 비추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에도 아기 예수 탄생에 관한 복된 소식이
전해져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다.



▲ 성탄절에 즈음하여 12월 20일 찬양예배시간에 성탄축하음악예배를 드렸다.

원로 추대 및 장기 근속자 포상

오늘 찬양예배시에

오늘 오후 5시 찬양예배 시간
에 원로 추대 및 장기 근속자 포
상식이 있다.

오늘 원로로 추대되는 성도들
은 모두 20명이고, 20년 근속자
는 1명, 15년 근속자는 42명, 10

년 근속자는 47명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
여 한 평생을 몸바쳐 헌신하신 원
로들과 친년을 하루같이 초지일
관 봉사해오신 근속자들에게 아
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93년도 교회 표어 및 목회 지침 확정

93년도 교회 표어 및 목회 지
침이 다음과같이 확정되었다.

◆ 93년도 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딤후1:14)

◆ 93년도 목회지침

-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 전도하는 교회
-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으로서의 교회
- 섬기는 교회

전국기독교직장선교회장
김천채 장로 피선

지난 12월 12일 직장 선교회
합회 제12회 전국 총회에서 우리
교회 김천채 장로(제8교구장)가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1200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
시대에 민족 복음화 활동의 최대
요소가 되고 있는 직장선교회는
우리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
회장 신성종 목사가 각각 고문 및
지도위원이며 우리 교회 전도위
원회와도 앞으로 더욱 긴밀한 상
호 협력으로 여러 가지 귀한 열매
가 기대된다.

신년축복성회

93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인
도하시는 가운데 설계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 신년축복성회를 개
최한다. 기도로 준비하고 적극 참
석하자.

- 일시:
1월 4일 저녁 ~ 8일 새벽
- 장소:
충현기도원
- 주제:
“영육에 축복받자”
- 감사: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소경과 병어리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마9:27~38)

1. 서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내용이 나옵니다.

2.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소경들은 앞을 보지 못해서 캄캄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색깔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 영적인 소경들, 천국이 있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들을 도와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오늘도 고쳐주신다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마9:27)

이 기도는 참으로 짧고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마디 속에 믿음과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즉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장차 메시아가 있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 소경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즉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3. 고침받은 비결

두 소경이 간구한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 그리고 소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단순한 기도는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연합적인 기도입니다. ‘두 소경’이라고 한 것은 연합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그들은 간절하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때때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셋째로 단순한 기도 속에는 그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오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내를 뜻하는 것입

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생활과 연결이 되어 신앙 생활이 될 때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자체는 단순하고 짧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경들은 따라가면서 인내하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마9:28)

소경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영의 세계를 제대로 날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마9:29)

물론 예수님은 말씀 한 마디로 고칠 수

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마6:3) 이는 광고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광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에게 선행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 교훈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천도 하셨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지금도 기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5. 병어리를 고치신 예수님

또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복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과 육이 치유받게 돼

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 다르게 고치십니다. 만져달라고 하는 환자에게는 만져주시고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환자들에게는 말씀으로만 역사하셔서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이적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또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믿음대로 됩니다. 된다고 소리만 질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으면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이적을 가져오고 믿음만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가지신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엄히 경계하신 이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마9:30)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신 첫번째 이유는 겸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일을 해놓고 광고하는 것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마9:32)

귀신 들려 병어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모든 병어리가 다 귀신들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은 많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들려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어리 된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지만 하면 모든 질병은 나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어리는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병어리의 귀와 입을 열리게 해주셨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마9:34). 이것은 바로 성령배방죄입니다.

물구나무를 서고 세상을 보면 거꾸로 보입니다. 한 발을 뻗으려고 하고 서서 보

면 뻗으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각이 뻗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앙은 없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로 보아집니다.

6. 결론

첫째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소경들과 병어리들은 어찌보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좋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야 할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나빴고, 소외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소경과 병어리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둘째로, 구원받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신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우리들이 믿으면 모두 고쳐주십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소외당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소외당한 사람,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다섯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여섯째로, 우리들의 참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곱째로, 기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8)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기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목자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마9:36, 37)

임기를 마치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손경수 장로(편집국장)



12월 19일 오전 6시경 TV화면에 나타난 "김영삼 후보 대통령 당선 확실"이라는 자막을 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피곤이 한꺼번에 물러가버렸다.

지난 2년 동안 세칭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휘말려 본의 아닌 오해와 무수한 비난을 받으면서 오로지 민족 복음화 차원의 믿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에 따라 분주하게 뛰다보니 두 해가 지나고 이제 92년도 며칠만 남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주간중현> 편집국장의 중요한 임무를 당회로부터 부여받으면서 두 가지 일(언론, 선거)을 하느라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좋은 신문(은 성도들이 읽고

유익한 신문,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신문, 성도간의 교제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신문)을 만들려고 새벽제단부터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뛰었으나 만족할 만한 신문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89년 3월 4일

<주간중현>을 창간한 초대 편집국장으로서 1년 동안 소임을 마치고 쉬고 있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91년 9월 17일 사건이 터져 부득이 다시 편집의 책임을 맡아 오다가 금년말을 계기로 물러나게 되었다. 9월 17일 사건은 지도자의 진실성 결여와 도덕성 결핍으로 인한 파문이었으며, 중현교회로서는 설립 40년사에 큰

오점이 되었고, 우리들에게 회개와 겸손의 역사적 의미를 던져준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상처입은 성도들의 아픔, 이 일로 인해 오는 후유증 제거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 지혜롭게 처신한 점은 한국교회사에 눈부실 만한 수습이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언론을 통하여 감당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며 인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곤욕이었다.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용기를 주시고, 실의에 차 있을 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무난히 극복함은 물론 이제 주간신문 정론으로서의 위치에 정착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주었고, 격려해준 덕택에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되는 좋은 결과가 되었다는 데 스스로 안위하고 싶다.

임기중에 새로운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맞게 되었고, 새 당회장의 목회방침에 따라 중현교회 성도들의 대변자로서 언론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좀더 잘 해보라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채찍에 항상 긴장하며 좋은 글을 쓰려고 애썼다. 허나 부족한 점이 많다.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다. 특별히 92년 한 해는 교회 목표가 "전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편집 방향도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 결과 92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첫 해 행사로는 수준작이었으며, 많은 교인들이 등록하는 결실을 얻게 되었고, 흠뻑 젖던 성도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응집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다음해에 전도 운동을 더욱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자

신감을 붙여 넣어주었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수고한 보람이 나타남을 친히 눈으로 보게 되는 가시적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 점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힘을 집약시킨다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겸허한 자세가 절실하다.

그동안 주간중현에 좋은 글을 써주신 교역자 및 장로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며, 기도로 협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인 오진국 장로, 박승준 장로, 이종국 장로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편집국장의 편집 계획에 의거 실무를 담당한 이종희 선생께도 감사를 드린다.

이제 1년 4개월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기도로 성원해주신 중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붓을 놓는다.

1992년 12월 26일

중현 세계선교위원회 귀한 동역자들과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이방 땅에 있으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듯이 우리 민족의 앞날과 복한의 우리 형제를 위해 저와 새벽기도의 동지들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바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고통과 수치의 역사를 허락치 않을 줄 믿고, 저의 사명이 더욱 지대함을 느낍니다.

저와 가족은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선교지 정착에 어려운 문제들을 그 동안 잘 극복한 것 같습니다. 씩씩한 교회도 질적, 양적으로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제자훈련 1기생 5명이 수료하게 되고, 내년 제자훈련에는 벌써 많은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도 탈락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제도전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힘도 들었지만 좋은 결실이 장차 기대가 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도 틀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11월 첫 주부터 광동어 동시통역 예배를 실시하게 된 일입니다. 통역은 CCC 홍콩대학 책임자인 최복기 선교사가 합니다. 현재 7명의 중국인이 등록하고 참석하고 있는데, 계속 부흥하여 중국 선교의

좋은 초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1년 정도 광동어 공부를 마치면 제가 직접 이들을 제자훈련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학기 중문 대학에서의 언어 훈련과 목회와 선교 준비를 이만큼이나 감당하고 버티어오신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중문 대학의 정규 과정은 주 15시간인데, 이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함으로 외국 선교사들은 2년간 언어 훈련에 거의 전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어 훈련과 제자 훈련 및

사님들도 이제는 좋은 동역자 교회로 인정하고 격려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절반 이상이 초신자요 저 또한 부족함이 많음에도 오직 저희들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해주시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셋째주부터 4개의 구역을 9개의 순으로 나누고 "예수 새 생명운동 100!"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른을 포함하여 100명을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운동은 93년 1월말까지 전개될 것이며, 특징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 선교에 열심은 있으나 장작 이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에 저희 홍콩중현교회가 금년부터 이 일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교회가 내적으로 어려워도 선교 헌금은 전액 대외 선교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개척 교회로서 연간 1000만원을 선교를 위해 썼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갈 때 채우심

터 중국 선교 전문지를 발간하여 한국의 교회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셔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까지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너무 부족하기에 실력이 있고 비전있는 헌신된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선교회의 기도의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 후원이 없이는 때때로 주저 앞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음을 기억해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새벽 기도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을 부르며 그 귀한 기도에 더욱 성령충만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부르짖습니다. 오직 기도외에는 이런 류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제목

(1) 93년 1월부터 시작될 제자훈련 2기를 위해(남1반, 여2반)
(2) 예수 새 생명 운동 100!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길
(3) 홍콩에 중국과 아시아 선교의 센타가 세워지며 이 일을 저희가 능히 감당하도록: 홍콩에 성령의 강한 불길이 일어나도록
(4) 선교사 가족의 성령 충만과 건강을 위해서(많은 일을 능히 감당케)
(5) 광동어 통역 예배가 날로 부흥하도록, 또 선교사 가족의 언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영어, 광동어, 북경어)
(6) 새벽 기도회가 꾸준히 부흥하도록(현재의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 홍콩에서 온 편지

오직 기도 외에는

김은태 홍콩 선교사



필수적인 선교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5개월간은 전도 활동보다는 내적인 각성과 중현교회의 말씀 중심의 목회 기초를 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이방 한인 사회, 특히 홍콩의 풍토로 볼 때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예배에 매 주일 60명 이상 출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일은 홍콩 한인 사회에 저희 교회가 조금씩 좋은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사회 속의 교회는 좋은 평판을 얻기 힘들며 특히 한인 교회가 생겨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것에 반해, 개척 초반의 분위기와는 달리 현지의 목사님들과 선교

홍콩의 특수성을 살려 순별로 가정으로 초청하여 전도하는 '소전도모임' 전략입니다.

이 운동과 함께 '주간홍콩중현' 예수 새생명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히 미약합니다. 손으로 쓰고 복사기로 복사하여 16절지 2면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93년 7월부터는 중국선교전문지로 발전시킬 큰 꿈을 갖고 위임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는 일관성 있고 체계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중국 선교 기관이 있으나 그들의 연구나 전략이 죄송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무 미천합니다. 이 일을 위해 좋은 일꾼과

을 경험했기에 93년에는 연간 2,300만원의 선교예산을 세우고 일생을 홍콩과 중국 선교를 위해 드리실 전임 선교사 한 가정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약 2년간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언어 훈련 및 선교 연구를 저와 함께 한 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콩 현지인 개척교회(광둥어 통역예배가 초석이 될 것임)나, 대륙으로 갈 수 있으면 대륙으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국 선교 연구 및 활동은 함께 할 것이며 매년 한 가정 이상씩 늘려가면서 3년 후에는 함께 중국 선교 전문 연구소와 센터 설립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당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부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 일정이 정해지기 전 먼저 태신자 기록 카드를 내면서 내 마음에는 큰 짐을 더는 듯했다. 이제껏 혼자서 이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줄 것을 생각하니 힘이 생겼고 열매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정해진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음은 조금해졌고 손과 발은 움직여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다.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보니 먼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지 혼자서 자신이 서질 않았다. 생각 끝에 가장 손쉽다고 생각된 구청 미화부 직원들을 마음에 정하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새벽 잠을 설치며 기다리던 중 그들을 만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리고 싶다."면서 인원을 파악하였다. 모두 22명이었다. 내 머리 속에서 이미 22명만 대접하면 가족을

3명씩 계산하더라도 66명이니 적어도 50명 이상은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대접할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다시 연락하기까지는 또 잠을 설치야 했다.

그런데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이 넘어도 약속 장소에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나 골목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동네 골목을 몇 바퀴나 돌고 와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한

두 명씩 오기 시작해서 모두 12명밖에 오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은 아저씨들 사이에 끼여 앉아서 시중을 들었다. 아저씨들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듯 했으나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우리들이 염려했던 대로 술을 주문하였다. 우리들은 당황하여 서로 얼 굴만 쳐다보며 실패의 싸인만 주

고 받았다. 그렇다고 그대로 술대접만으로 끝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 큰 잔치 안내 포스터를 보여주며 한 번 더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모두들 틀림없이 가겠노라고 약속했고, 그 중에 한 분은

록 연락이 없었다. 초조히 기다리다 무조건 밤에 술집들을 찾아나섰다. 마침 한 아저씨를 만나 물어보았더니 오늘 모두 내장산 단풍놀이를 떠나 내일이나 온다고 했다.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

또 전도만 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사냐? 교회에서 돈은 얼마나 받느냐? 그렇게 예수가 좋으면 내가 믿는 예수 하

고 내가 믿는 부처하고 한번 싸움 좀 붙여보자."면서 억지를 부리는 사촌 오빠네 식구가 모두 7명. 오빠 한 사람만 돌아서면 나머지 6명은 모두 전도할 수 있는 큰 발이었다. 남편과 함께 질이 좋은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찾아가 오빠에게 아무리 말해봐도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예수 안믿을 테

니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부부가 똑같더니 그래도 올케언니는 마음이 많이 돌아와 교회에 나가면 그날로 이혼하거나 절 근처로 이사해서 불공을 드리겠다는 오빠의 협박 아닌 협박에도 불구하고 잔치당일에 혼자 교회에 나왔다. 생명의 씨앗이 이미 그 가정에 심어진 줄로 믿는다.

교회와 집을 설 사이 없이 네 차례나 왕래하며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결국 이들 중에는 결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해왔던 태신자들은 스스로 와주었고, 그들 중 결신자가 4명이나 있어 현재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금년에 뿌린 씨앗들이 언젠가는 기쁨의 단으로 견어질 것을 소망한다.

독자의 글

실패도 하나님의 축복

신희순 집사(제11교구)

자기 봉고차로 가족들을 책임지고 데리고 갈테니 사람들의 차량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또 반장되는 아저씨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잔치 전 날인 토요일까지 연락 해주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다. 교구에서 실시하는 전도상을 탈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토요일 늦도

● 구역예배 ●

(1993. 1. 1)

제1과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출발하자

· 본문 : 사편 73장 20절 ~ 28절 · 찬송 : 495장, 364장

· 요절 : 사편 73장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번영하는 한 해를 보낼 것인가에 꿈이 부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기대는 작년에도 그러했고 재작년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한 해를 보내곤 합니다. 1993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우리의 꿈과 비전이 꼭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시73:20~22)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터무니 없는 꿈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지난 밤에 정말 깨어나기 아쉬운 아름다운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에 매달려 한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6:11)

[질문]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헛된 꿈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답〉 멸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22절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와 같다고 했습니까?

〈답〉 우매무지하고 짐승같다고 했습니다.

* 다음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봅시다. : 엡2:2, 3, 딤후1:12~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약4:16에 세상 자라는 다 허탄한 것이며 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73:23~25)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1)(23절하) 오른손으로 붙드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24절상)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함정과 유혹이 많지만 그때마다 말씀(성경)으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24절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해주신다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요14:3)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벧전5:10)

3. 하나님을 견고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시73:26~28)

(1)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26절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은 실패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힘이 되시고 영원한 나의 거처(주소)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명에나 권세도 세월따라 환경따라 변합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어떠한 일에도 요동치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 내 모든 것(마음, 생활, 직장 등)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27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단어 설명 : "주를 멀리하는 자" - 주님 중심으로 살지않는 자를 말함.

"주를 떠난 자" -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함.

〈답〉 망한다고 했습니다.

4.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시73:28)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자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미 언급한 위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 2항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내 생활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1993년은 "제2차 교회 배가 운동의 해"입니다. 이 운동이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 토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지 피차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 부탁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 믿음을 갖도록 열심히 권유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형제, 처음 믿는 형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 이웃을 찾아 권면하고 위로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